

#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광주 개최... 1만3천명 참가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오는 9월 20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간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한다.

'그레이트 점프(Great Jump)! 기술에 빛을 더하다'를 슬로건으로 하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선발된 선수와 지도교사, 임원, 자원봉사자 등 총 1만 3000여명이 참가한다. 대회는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공고, 광주전자공고, 전남공고, 광주자연과학고, 광주인력개발원 등 6개 경기장에서 진행된다.

폴리메카닉스, 전기제어, 용접, 애니메이션, 헤어디자인 등 전통 직종 48개와 산업용드론제어, 사이버보안, 모바일앱개발 등 미래기술 관련 3개 시범 직종이 새롭게 운영돼 총 51개 직종에서 기량을 겨룬다.

개회식은 오는 22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며, 대회기간 동안 각 경기장에서는 엄정한 심사와 함께 경기가 진행된다.

직종별 1위 선수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상과 1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고, 직종별 1~2위 입상자는 국제기능올림픽대

20~26일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6개 경기장에서 51개 직종 경쟁 산업용드론·사이버보안·모바일앱 등 미래기술 시범종목도 신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축제로... 1·2위, 국제대회 참가자격 부여

회에 참가할 후보선수 자격을 획득한다.

광주시는 지역 선수들의 활약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광주에서는 37개 직종에 105명의 선수가 출전해 지역 특화 기술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대중컨벤션센터에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경기장'이 마련된다. 광주숙련기술인연합회와 대한민국 명장 작품 전시를 비롯해 네일아트 체험, 도자기 체험, 첨단 로봇기술 체험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운영된다. 응원 메시지 트리과 기능경기대회 히스토리월도 설치돼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

대회 운영에는 지역 대학생과 자원봉사센터가 협력하는 200여 명 규모의 자원봉사단이 참여한다. 이들은 안내, 주차, 환경정화 등 다양한 역할을 맡아 '시민이 함께

만드는 대회'라는 취지를 실현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 고용노동부가 공동 주최하고,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와 광주시 기능경기위원회가 주관한다. 총 169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경기장 시설 개선과 대회 운영을 지원, 참가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대회 출전 준비에 매진하고 있는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 광주자화화설비마이스터고등학교 등 지역 마이스터고 2개 학교를 직접 찾아 선수와 학부모를 격려했다. 김영문 문화경제부시장도 주관기관을 방문해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등 성공 개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번 대회는 전국 기술인들이 광주에서 뛰어난 기량을 겨루며 미래산업을 이끌 인재로 성장할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젊은 기능인들이 세계 무대로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고, 시민과 함께하는 전국 기술인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광훈 기자

### 남구, '주민 행복 위하여' 사회복지인의 다짐

#### 시설·단체 관계자 등 450여명 한자리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관내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들의 다짐과 함께 관내 공공기관 및 민간 복지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강화를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남구는 16일 "제26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해 관내 사회복지인이 한자리에 모이는 '남구, 복지사랑 품당' 행사를 오는 25일 남구 다목적체육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동체 삶을 지향하는 사회복지의 참뜻을 되새기고, 관내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모두 모이는 이번 행사에는 관내 사회복지 시설과 단체 관계자, 구청 사회복지 관련 업무 담당자 등 450명 가량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행사는 기념식 및 화합무대로 치러진다.

먼저 1부 기념식에서는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5명과 구청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5명이 유공자 표창을 받는다.

표창수 수여식이 끝난 뒤에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각오를 다지는 자리

가 펼쳐진다.

참석자들은 이날 현장에서 남구 사회복지 발전 열망과 그간의 노고에 대한 감사 마음을 담은 현수막을 이용해 1분여 가량 퍼포먼스로 선보일 예정이다.

2부 자리는 화합과 소통의 시간으로 채워진다.

행사 참가자들은 각각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가족복지, 지역복지까지 4개팀을 구성해 부문별 단결력과 화합의 모습을 뽐내는 시간을 갖는다.

또 퀴즈 풀이를 통해 민관 협력 네트워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탐구하면서, 사회복지 실천의 새로운 접근과 미래지향적 복지정책의 개발에 관한 공감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일선 현장에서 이웃을 돌보면서 살기 좋은 행복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 모이는 만큼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각오와 참여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울 것이다"면서 "행복 남구의 미래를 더욱 단단하게 구축하는 자리가 만들겠다"고 밝혔다. /임재일 기자

광주 동구(구청장 임택)는 오는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간 금남로와 충장로 일대에서 열리는 '제22회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 개최 30일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축제'인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는 '추억'을 소재로 한 국내 유일의 문화예술 거리 축제다. 1970~80년대 가장 번성했던 시기, 구도심의 부흥을 이끌어내고자 지난 2004년부터 선보이고 있으며 올해 22회를 맞았다.

올해 충장축제의 주제는 '추억의 동화'로 사랑, 모험, 소망, 상상이 가득했던 추억 속 동화를 구현해 환상이 가득한 새로운 경험을 선사한다. 날짜별로 1일 차 '개막의 날'(15일), 2일 차 '아시아 문화의 날'(16일), 3일 차 '가족의 날'(17일), 4~5일 차 '행진의 날'(18~19일) 등의 주제로 준

##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 '추억의 동화' 준비 총력

10월 15~19일 금남로·충장로 일원, 충장 퍼레이드 확대 운영

비했으며,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알찬 프로그램으로 꾸려진다.

올해 축제의 가장 큰 특징은 ▲장소적 특성 반영 및 축제 글로벌화 ▲신규 특화 콘텐츠-주먹밥 콘테스트 '손으로 맛나는 추억' ▲축제의 백미인 '충장 퍼레이드' 확대 ▲7080 추억의 테마거리 실물 재현 등 4가지다.

먼저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이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있는 장소인 만큼 이번 축제를 아시아 각국의 문화와 추억을 아우르는 시간으로 확장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사 둘째 날인 16일 '아시아 문화의 날'에서는 아시아 국가의 문화, 놀이, 음식 등을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아시아 컬

처 스트리트'를 운영한다.

올해 처음으로 선보일 주먹밥 콘테스트 '손으로 맛나는 추억'은 광주 5·18 정신인 '연대'와 '나눔'을 상징하는 주먹밥을 주제로, 개성 있고 맛있는 주먹밥을 찾기 위한 미션형 콘테스트다. 18일 금남로 주 무대에서 열리며, 특별한 주먹밥 레시피를 선보이고자 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사전·현장 신청)하다.

축제의 백미인 '충장 퍼레이드'도 확대 운영한다. 기존 축제 기간에 하루만 진행했던 퍼레이드를 이틀에 걸쳐 선보이며, 18일에는 국내 유수 테마파크 퍼레이드팀을 초청해 광주에서는 보지 못했던 특별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축제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폐막식이라는 정형화 된 틀을 벗어나 전국 공모를 통해 선정된 퍼레이드팀의 공연과 동구 행진동이 준비한 퍼레이드를 동시에 선보인다. /오철수 기자

## 전남도, 청년 희망 일자리 참여기업·청년 모집

중소기업·사회적경제기업 청년 신규 채용시 1년간 월 92만원

전라남도는 미취업 청년에게 안정적인 일 경험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덜기 위해 '2025년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과 청년을 모집한다.

전남지역 중소기업·사회적경제기업이 미취업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1년간 매월 92만 원(최저임금 110% 기준 월 230만 원의 40%)을 지원한다.

또한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정규직을 유지·전환할 경우 기업과 청년에게 각 200만 원의 인센티브가 추가 지급된다.

모집 대상 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도내 중소기업·사회적경제기업이며, 청년은 시군 조례에 따라 전남에 거주하는 만 18~49세 미취업자 114명이다.

신청은 16일부터 전남일자리정보망(job.jeonnam.go.kr) 또는 이메일(jnjob3800@naver.com)로 예산소진까지 접수 가능하며, 서류 심사와 평가를 거쳐 선정한다.

이후 기업 채용공고, 청년 입사 지원,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최종 매칭 순으로 진행된다.

문의는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061-750-7743) 또는 전남일자리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인민국장은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이 청년에게는 실질적 일 경험의 발판이 되고 기업에는 인력난 해소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전남도는 지역 산업구조와 고용 여건을 반영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청년과 기업의 동반 성장을 튼튼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은 국비 지원이 종료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기존 성과를 연계·확대하기 위해 전남도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채용부터 기본 직무교육, 커뮤니티 활동 등 현장 적응·정착 프로그램까지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염선호 기자

## 북구, '다자녀 가족과 함께하는 무등산권 체험관광' 참여자 모집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자녀 가족과 함께하는 무등산권 체험관광'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가족여행이 어려운 다자녀 가족을 대상으로 북구의 관광 명소를 소개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가족 간 소통과 화합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의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체험관광은 다음 달 18일~26일의 기간 중 토요일과 일요일 각 1회씩, 총 4회 운영될 예정이며 북구의 문화·생태 자원을 두루 체험할 수 있도록 ▲희망의거리(예술) ▲맛있는예술여행센터(음식) ▲국립광주과학관(과학) ▲중외공원문화벨트(문화) ▲광주호수생태원(생태) 등 지역의 테마별 관광 명소로 짜인 2개의 코스로 구성됐다. 아울러 음식 만들기 체험, 과학관 및 디자인비엔날레 관람, 호수생태원 AR

체험 등 각 관광 명소의 특성에 맞는 체험형 프로그램이 함께 제공되어 여행을 더욱 풍성하게 할 전망이다.

오는 26일까지 참가자 100여 명을 모집하며 1가정당 1회만 신청할 수 있다.

참가 자격은 신청일 기준 북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이다.

또한, 부모 중 1인 이상이 여행 당일에 동행할 수 있어야 하며 참가자 선발 시 3

자녀 이상 가족을 우대한다.

이번 여행에 참여하고 싶은 주민은 북구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구비서류를 이메일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체육관광과(☎ 062-410-6172)에 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다자녀 가족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사하면서 지역의 관광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만큼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자원을 활용한 매력 있는 관광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현근 기자

